

위기의 교육환경, 확실하게 바꿀 것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도내 교육감선거가 함께 이뤄진다. 3선에 도전하는 김승환 현 교육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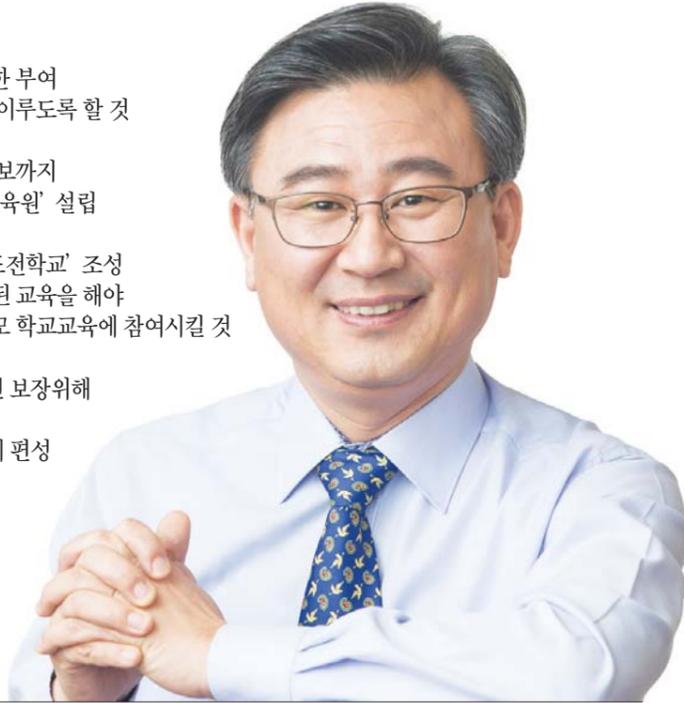
에 맞서기 위해 6명의 예비후보들이 도전장을 냈다. 현재 등록한 예비후보는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 황호진 전 전북도교육감, 이미영 전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유광찬 전 전주교대 총장, 이재경 전 전주교육장 등 6명이다. 이들은 도내 여러 시군을 돌며 민심을 듣고, 지역교육 현안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포식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본보는 6인의 예비후보자들 중 하나인 서거석 예비후보 인터뷰를 벌인 바 있다. (본보 3월 15일자 16면) 이번에는 천호성 예비후보를 만나 정책과 소신, 철학 등을 들어봤다.

“학교에 자율적 교과과정 권한 부여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 이룰도록 할 것

국내 입시부터 세계 대학 정보까지
진로를 위한 '전북도 진로교육원' 설립

완전 자율 창의적인 학교 '도전학교' 조성
획일화된 교육 아닌 다양화된 교육을 해야
자녀교육 관심 갖도록 학부모 학교교육에 참여시킬 것

전북교육인권회 만들어 교권 보장위해
교사들까지 포함시킬 것
인적성 프로그램 교과시간에 편성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까지 포함하겠다. 아울러 이러한 현재 상황이 경쟁적인 학교환경 때문에 일어난 것이므로 현재 교육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인적성 프로그램을 교과시간에 편성하겠다.

Q. 다른 후보와는 차별화 된 공약이 있습니까?

A. 혁신학교를 뛰어넘는 도전학교를 만들겠다. 도전학교는 완전한 자율 창의적인 학교로 특정학교를 선정해 학교 자체적으로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제는 기존의 자사고처럼 국영수를 중심으로 하는 입시중심의 학교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입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이제는 운영해야 한다.

기존의 경쟁적 방식에서 협력적인 방식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스스로 하는 교육으로, 안정이 아니라 도전적인 방식으로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다양화 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해야 한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학교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지원하겠다. 현 입시제도를 바꾸고 학교 서열화를 바꿔야 한다. 또 궁극적으로 주입식교육보다 그룹별 모둠학습을 진행한 학생들이 더 열심히 하고 실제로 성적도 잘나온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제일 많지만 정작 1등은 핀란드다. 핀란드는 법적으로 숙제도 없고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와 같은 주입식 교육도 없지만 세계 1등을 유지하고 있다. 또 녹색어머니회를 폐지하고 노인일자리로 돌리고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시키고 학부모로서 자녀들의 교육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실제로 익산성당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참여해 수업시간에 사용할 재료를 함께 만들고 있다. 그리고 초중고교 과정에 수준에 맞춰 책을 300권을 읽게 해 아이들의 교양을 쌓게 하겠다. 아울러 글을 쓰는 교육을 사기겠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A.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 바뀔려면 한다. 교육은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와 연결돼 있다. 청년세대를 잘 키우는 것은 현 기성세대의 노후나 마찬가지다. 관점전환이 필요하다. 지나친 개인주의에서 탈피해서 교육의 공공성에서 바라주기 바란다. 지금 교육감은 행정가가 필요하지 않다. 교육전문가도 필요하지 않다. 이제는 교육혁신가가 필요하다.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교육혁신가가 필요하다. 도민 여러분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가진 사람을 보고 뽑아줬으면 한다. 또 단순히 인사와 얼굴을 안다고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책과 공약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삼민 기자

Q.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계기는?

A. 교육학자로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우리나라같은 교육환경을 가진 곳이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가 교육에 대해서 공격적이다. 대학생의 50%이상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국가가 우리나라 밖에 없다. 수많은 인력들이 낭비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길래 국가가 이렇게 됐나 문제의식을 느낀다. 현 학교환경이 정글이고 아이들 자살률도 OECD기준 1위, 행복체감지수 최하위인데 이것을 교육학자로서 보고 이런 교육환경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

이대로 가면 교육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전라북도 760개 초중고교 중 300여개를 돌아다니면서 강연과 수업, 컨설팅을 하면서 노력을 해왔지만 역부족했다. 그래서 교육감이 돼야 이러한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겠다고 느꼈다. 문재인 정부 교육특별로 지내면서 관련 관료들과 함께 현재 교육상황을 혁명적으로 바꾸지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교육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출마했다. 아울러 세월호 사건 당시 유가족들이 단식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람들이 모여 집단으로 그 옆에서 피자를 먹으며 유가족들을 슬픔을 기만하는 모습에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을 느껴 교육환경을 바꿔야 하겠다고 느꼈다.

Q.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A. 교육감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만큼 정치적으로 대화나 알아보고 않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있어 반응이 싸늘하다. 특히 도지사나 시장선거와 달리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과 직접 대화를 해보면 "당신과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며 지지하고 용기를 준다.

Q.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연속 5년간 도내 중고교생의 기초학력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A. 전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중학교에서 학습 부진아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 왜냐하면 공부잘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위쪽으로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아이들은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 특히 현재 교육방식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일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진한 아이들이 소외되고 찾아가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학교가 자율적인 교과과정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기초학력보장 조례를 지자체와 협의해 만들겠다. 전라북도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력을 측정해 학력이 부족한 학교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평균기초

학력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만약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하면 지자체와 협력하겠다. 진짜 지역인재를 키우는 학교에 지원을 하겠다.

Q. 진로정책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A.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서 진로가 너무 다양하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 이야기를 나눠봐도 특별한 목적 의식도 없고 잘 모르고 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전라북도 진로교육원을 설립해 진로에 관한 모든 정보와 인프라를 모으겠다. 단순히 진로교육을 위한 체험센터가 아니다. 국내 입시정보 뿐 아니라 세계에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까지 모으겠다.

또한 기존 지역산업과 연계해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인재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앞으로 5차 산업이 생명과 연계된 산업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돼 이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Q. 전교조의 노조 전임 허용과 해직교사 복직 문제에 대한 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A. 허용하겠다. 바로 전 정부에서 전교조를 의도적으로 법외노조로 판단했다. 이는 잘못된 것이며 바로 원상복귀시키겠다. 교육계에서 전교조가 모든 것을 잡았다고 할 수 없지만 전반

적으로 우리 교육에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영향을 미쳤다. 적극 지지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Q. 학생인권예 비해 교권이 위축돼 있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A. 요즘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서로 모순되지만 함께 가야 한다.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 만큼 교권도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끼리 공동합의를 통해 규칙을 정해야 한다. 특히 교사에게 불만이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 교사들의 먹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가장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행동은 운전을 하고 있는 버스가 폭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학교와 교사에게 불만이 있다면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학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교사를 화풀이 하는 것은 교권을 무너트리는 일이며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생님에게 욕하는 아이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아이들은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 교화시키겠다. 폭력과 욕설을 하는 것에 거리낌 없는 아이들에게 이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죄의식을 느끼도록 하겠다. 또 전북교육인권회를 만들어 현 학생인권회를 넘어

당신의 사랑은 제대로 전달되고 있나요?

적십자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제대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합니다.

아십니까? 적십자가 더 투명한 이유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재무투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경영 투명성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국정감사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매년 사업과 회계를 투명하게 검증 받습니다.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클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후원문의 1577-8179 (민간전화)

구분	금액
01. 후원금 사용내역	
01.1. 후원금 총액	51,370,679,216
02. 국내 재난 구호활동	16,359,898,992
03. 해외 구호활동	4,079,359,901
04. 인건 지출비용	5,733,677,999
...	
참여해주신 적십자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대사 류수영